CEO는 강한 심력(心力)의 소유자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벌써 춘삼월이다. 풋풋한 청춘의 계절이다. 청춘은 변화에 두려움이 없다. 오히려 변화를 사랑한다. GE의 전 회장 잭 웰치의 자서전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에서도 변화에 대한 불굴의 뜨거운 가슴이 긴요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것이 청춘의 뜨거운 가슴이다. 변화와 도전과 용기가 생리적으로 젊은이만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다. 정직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하는 이들 모두의 것이다. 따라서 나이와 무관하고 성별조차 초월한다. 뜨거운 가슴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CEO는 항상 뜨거운 가슴을 지닌 청춘이다. 그래야 바른 지성과 강력한 추진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를 열어간다.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경제학계의 거장 알프레드 마셜도 냉철한 머리, 뜨거운 가슴이 학문과 세상을 가치있게 변화시킨다고 했다. 뜨거운 가슴없는 지식은 살생을 범하는 칼과 같다. 80년대 중반 인텔은 메모리 사업에서 일본과 경쟁하여 큰 손실을 입기도 했다. 그리고 경쟁사들과 법적문제로 수년간 혼란에 빠져들기도 했다. 이러한 역경을 거치면서도 그들의 CEO 앤디그로브의 리더십을 신뢰했던 것은 그의 무한한 애사심과 순수한 정렬이었다. 그래서 성공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텔은 메모리 칩 생산을 과감히 접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부문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 대변신의 성공을 이끌어 냈다. 앤디그로브의 애사심과 선하고 강렬한 정렬! 그것이 대세를 바르게 판단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 인자만이 사람을 사랑도 미워도 할 줄 안다." 공자 말씀이다.

실명이라는 역경을 뜨거운 가슴으로 이겨낸 강영우 박사의 '역설적인 지도자의 십계명'도 고귀한 증언이다. 비합리적인 고객은 물론 억지쓰는 주주 모두를 사랑해야 하는 CEO에게 강한 심력을 키우고 지니는데 긴요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선 강영우 박사 프로필을 소개하는 것이 긴요하다.

1944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재학중 외상에 의한 망막 박리로 실명한 후 굳은 의지로 극복, 세계적인 재활의 귀감이 되었다. 1972년 8월 한국 장애인 최초 정규 유학생으로 아내와 함께 도미했다. 3년 8개월만에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전공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 1976년 4월 한국 최초 맹인박사가 되었다. 마침내 그는 중3영어 교과서(교학사)에 현대의 영웅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2000년, 2001년 미국저명 인사 인명 사전, 2001년 세계저명 인사 인명 사전에 수록되었으며, 2001년부터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다.

강영우 박사의 '역설적인 지도자의 십계명'

1. 세상 사람들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라.
2. 당신이 선행을 하면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말에 귀기울이지 말고 선을 행하라.
3. 당신이 성공을 하면 그릇된 친구와 원수도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성공하라.
4. 오늘 좋은 일을 해도 내일이면 허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라.
5. 정직하고 솔직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직하고 솔직하라.
6. 대의를 품은 이가 졸장부에 의해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을 크게 하라.
7. 세상 사람들은 약자를 선호하면서도 오로지 강자만을 따른다. 그러나 소수의 약자들을 위해 투쟁하라.
8.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탑을 계속 쌓아 올려라.
9.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라.
10.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주고도 이로 물려 뜯기고 발로 차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라.